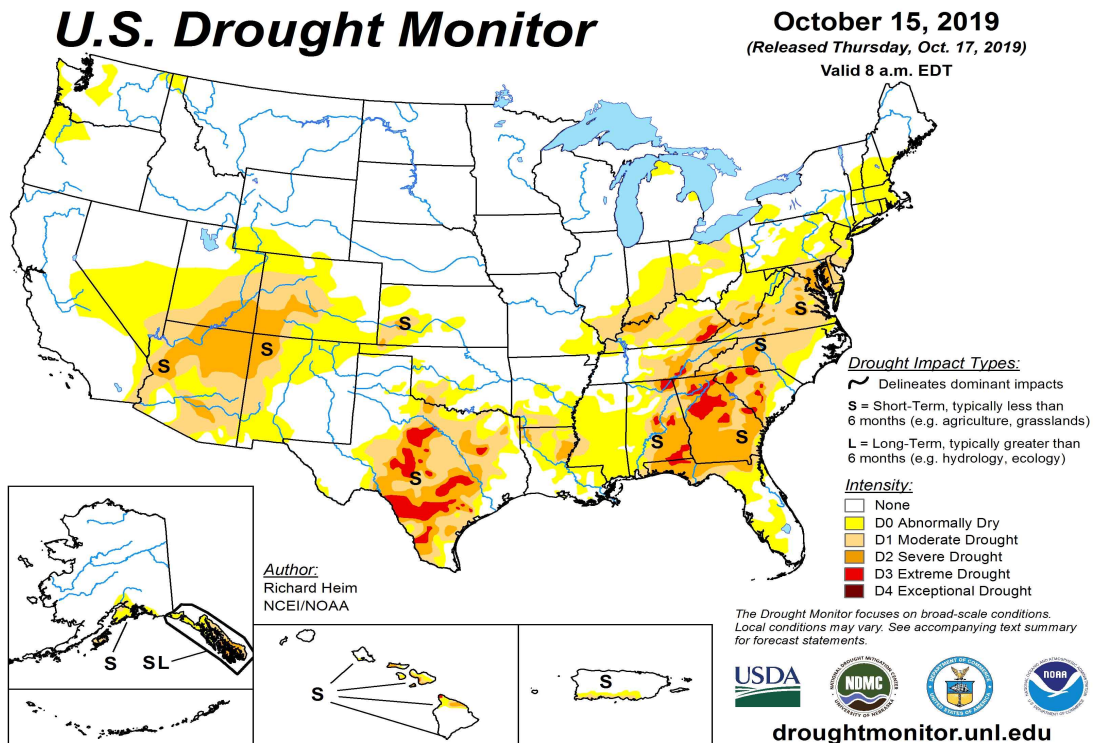


10월 2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82)

□ 미국 기후 현황(10/13~10/19)

대평원과 중서부는 시원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작물의 건조와 철 이른 수확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대평원과 중서부의 북쪽 구역은 전반적으로 계속 비가 내려서 야외 작업이 느리게 진행되었다. 한편 남부와 동부는 후-열대성저기압 네스터가 지나가기 전 및 지나가는 중에 가뭄을 완화시켜주는 비가 내렸다. 열대성저기압이었던 네스터는 10월 19일에 멕시코만 플로리다 해안에 도착했다. 네스터가 도착하기 전에 남부와 동부에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야외 작업을 늦추었지만 토양 수분을 상승시켰고 최근에 심은 겨울 곡류와 피복 작물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다. 태평양 북서부에서부터 로키 산맥 북부까지의 먼 서부는 건조한 남서부와 대조적으로 시원하면서 소나기를 뿌리는 날씨였다. 남서부는 건조하여 날씨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같은 곳의 목화 수확 활동을 비롯하여 야외 작업에 유리하였다. 나라 대부분에 찬 공기가 유입되어 미국 최남단 일부에만 온기가 있었다. 남북 다코타 일부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 F 이상 낮았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여러 장소들과 중남부와 중서부를 아우르는 넓은 구역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플로리다의 몇 곳은 평년보다 최소 5° F 이상 높았다. 옥수수 벨트의 북부와 서부의 많은 곳들에서 2019년 재배기를 끝내는 추위가 강타하는 가운데 한 주가 시작되었다. 이후 추운 조건들은 나머지 중서부 전체로, 그리고 산발적인 또는 광범위한 서리가 보고된 북동부까지 확장되었다. 결빙이 발생할 당시 상당량의 옥수수와 일부 콩들이 충분히 성숙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농업 현황 요약(10/14~10/20)

미국 대부분은 10월 20일까지 한 주간 강우가 거의 없었다. 델타, 북서부, 남동부 일부에만 5인치 또는 그 이상의 비가 내렸을 뿐이었다.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미시시피 계곡, 노스다코타를 포함하는 넓은 구역에서 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6° F 이상 낮았다. 대조적으로 콜로라도 동부, 플로리다, 캔사스, 텍사스 일부는 평년보다 6° F 이상 높았다.

□ 세계 기후 현황(10/13~10/19)

■ 유럽: 비오는 날씨가 서유럽 전체로 확장되었지만 동부 작물 재배지에는 건조하고 따뜻한 상태가 정착되었다. 연달아 일어난 대서양 폭풍들이 북동쪽으로 지나가면서 프랑스에 10-65 mm의 비를 내려주어 마지막 남은 여름 가뭄의 흔적을 지우고 밀과 유채 활착을 위한 수분 공급을 상승시켰다. 마찬가지로 적당-심한 소나기 (10-50 mm, 지역적으로 그 이상)가 영국, 독일, 저지대 국가들에 내려서 겨울 작물 활착을 위해 젖은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스페인에도 비가 내렸는데 중요한 겨울 곡류 지대에는 총량이 25 mm가 넘어서 파종과 활착에 좋게 토양 수분을 개선하였다. 반면, 동유럽은 화창한 하늘과 평년을 웃도는 기온 (평년보다 3-8° C 높음)으로 늦여름 작물 수확을 촉진했고 겨울 작물 활착에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다뉴브 강 계곡에는 가뭄 포켓이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곳의 60일 강우 총량은 평년의 50% 미만이었다.

■ 구소련(서부): 월초 강우에 이어진 건조하고 온난한 날씨가 겨울 밀 활착을 촉진했다. 지난 주 우크라이나 남동부 전역과 인근에 적당한-심한 소나기가 내린 후에 화창한 하늘과 평년보다 최대 8° C 높은 기온이 겨울밀의 출현과 활착을 촉진했다. 그런 건조하고 따뜻한 조건들은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시기적절했는데 이곳은 여름과 초가을 가뭄이 밀의 출현과 활착을 제한했던 곳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북부와 서부는 여전히 가뭄이 걱정거리인데 이곳의 60일 강우량은 평년의 50% 미만이었다 (지역적으로는 25% 미만). 반대로 같은 기간 남러시아의 핵심 겨울 밀 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평년의 90-125%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는 11월 하순에, 좀 더 북쪽 지역은 월초에 겨울밀이 동면에 들어간다.

■ 동아시아: 동중국 전역은 차갑고 건조한 날씨가 여름작물 수확과 겨울 작물 파종을 지원했다. 남동부는 건조가 늦작물 벼의 성숙을 지지했지만 가뭄을 악화시켜서 겨울 채소를 위한 수분 공급량을 더욱 감소시켰다. 소나기는 주로 북중국 평원의 서쪽 구역 (10-25 mm)과 양쯔 계곡 (25-50 mm 또는 그 이상)에 집중되었고 수분 공급을 올려주어서 밀과 유채 파종에 도움이 되었다. 태풍 하기비스의 잔여 세력이 일본 전역에 심한 소나기 (50-100 mm)를 내려 벼의 성숙과 수확을 지체시키고 있었다.

■ 호주: 서호주 밀 벨트의 북쪽 구역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성숙 중인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의 건조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나중에 성숙하는 품종들을 위한 수분 공급은 더욱 감소시키고 있었다. 먼 남쪽과 동쪽에는,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 (5-1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서호주 밀 벨트의 남부와 호주 남동부의 미성숙한 밀, 보리, 캐놀라에 유익을 주었다. 대조적으로 뉴사우스웨일즈의 북부와 중부에 있는 주요 재배 지역 대부분에는 건조한 날씨가 뒤덮었다. 이 건조한 날씨는 가뭄 피해를 입은 밀의 성숙과 수확을 가속화시켰고 여름작물 파종과 초기 발달을 계속 방해했다. 먼 북쪽은, 비 (5-1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남퀸슬랜드 일부에 가뭄을 다소 해소하여 그 결과 추가 여름작물 파종을 유발하였다. 동호주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3° C 높아 작물의 발달을 재촉하였다. 호주 남부와 서부는 평균 온도가 평년 근처였다.



■ 아르헨티나: 소나기가 내려서 이전에 건조했던 서부와 남부의 겨울 밀 지역의 건조를 해소해주었다. 아르헨티나의 남부 겨울 밀 벨트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부 농업 지대)에 내린 강우 총량은 10-25 mm였고 (지역적으로는 50 mm까지 도달), 라 팜파 북부에서부터 북쪽으로 살타까지 생식 중 또는 생식기 근처에 도달한 겨울 곡류를 위해서 필요했던 수분 상승을 이끌어냈다. 더욱이 코르도바와 아르헨티나 북서부에서 그 수분은 농민들이 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지역들에서 옥수수과 기타 여름작물들의 파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 같다. 대부분의 동부 농업 지대 (부에노스아이레스 중부에서부터 북쪽으로 코리엔테스를 지나기까지)에 강한 비 (25-50 mm 또는 그 이상)가 내렸다. 이곳은 지금까지 해바라기와 조생 옥수수를 심기에 수분량이 적당했었다. 이런 강우 패턴으로 이 지역은 평년보다 더 서늘해졌지만 (주간 평균 온도가 평년보다 2-5° C 낮음) 결빙이 보고되지는 않았다. 먼 북부 농업 지대 (특히 살타, 차코, 포르모사)만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대로 올라갔고 그 밖의 곳들은 중간 및 높은 20도 대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0월 17일 현재 해바라기 파종은 41% 끝났는데 작년 추이와 비교해서 5% 지체된 수준이었다. 옥수수는 작년보다 8% 느린 28% 파종되었다.

■ 브라질: 중앙 브라질에는 산발적인 소나기가 계속되었지만 여러 핵심 농업 생산 지대에서 건조 포켓이 발달했다. 마토 그로소 북부에서부터 동쪽으로 토칸틴스 북부를 지나기까지 가뭃거나 적당한 비 (10-25 mm 또는 그 이상, 지역적으로는 50 mm 이상)가 내렸고 마토 그로소 남부 일부와 마토 그로소와 고이아스에 있는 인근 장소들에도 내렸다. 하지만 마토 그로소 동부와 고이아스 북부, 바히아 서부를 포함하여 다른 지역들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계절에 맞지 않는 건조 (0-25 mm)가 미나스 게라이스, 상 파울로, 그리고 파라나 북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파라나 남부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더 많은 비 (25-100 mm)가 기록되었다. 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역에서 계절을 벗어난 온기 (주간 기온 평균이 평년 대비 2-5° C 또는 그 이상)가 우세하였는데 이 가운데에 강우량이 평년에 근접한 남부 지역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의 북부처럼 먼 남쪽은 낮 최고 기온이 높은 30도 대 (섭씨)에 이르렀고 마토 그로소에서 더 더운 일부 장소들에서는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이르렀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10월 18일 현재 콩은 41%트 파종되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51%였고 5년 평균은 30%였다. 중앙 농업 지대에서 파종을 끝내고 최근 발생한 폭염으로 촉발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계절에 맞는 수준의 비가 더 내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파라나에는 보다 일정한 패턴의 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 현재 이곳은 여름작물 파종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2019/20 첫 옥수수는 10월 15일 현재, 80% 파종되었고 콩 파종은 33% 진행되었다. 한편 옥수수는 10월 17일 현재,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66% 파종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5년 평균치 (61%)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었다. 밀은 7% 수확이 완료되었는데 5년 평균보다 12% 뒤쳐지는 수치였다.